

2014년 5월 12일 월요일

날씨: 비 그친 뒤 흐리고 쌀쌀하다가 오후에 갸

오늘은 평소보다 약 2시간 이른 5시에 일어났다. 왜냐하면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이삭토스트 평촌 예담점에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이다.(근처 농협 부흥지점: 불갈비 토스트 45개) 오전 7시까지 만들어야 해서 세수만 하고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뒤, 아침으로 사과즙과 비타민만 먹고 출근을 했다.

어제 늦은 저녁에는 마치 여름 장마처럼 비가 많이 내려서 오늘도 그럴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비는 그쳐 있었다. 그렇지만 하늘은 흐렸고 바람도 꽤 차갑게 불었다. 주문은 다행히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서 혼자 할 때보다 수월하게 토스트를 만들 수 있었고, 6시 50분에 무사히 전달해 드렸다.

정식 근무시간인 7시가 시작되어 다시 손님 맛을 준비를 했다. 매주 월요일에는 재고조사를 해야 해서, 이것도 함께 했다. 어머니는 8시 반쯤 요양보호사로 출근하러 가시는 길에 다시 들르셔서, 아침을 먹지 못한 나를 걱정하시며 인절미 떡 한 봉지를 가져다 주셨다. 그러나 난 속이 좋지 않아서 함께 일하는 바리스타 나 여사님께 드렸다. 대신 여사님께서 가져오신 무+우유+당근+표고버섯+무청 달인 물을 조금 마셨다.

이른 아침에는 손님이 많지 않은 편이라, 여사님과 DMB로 KBS1 인간극장 '수영이 이야기' 1부를 시청했다. 이번 주 방송에 등장하는 수영 씨의 어머니가 나 여사님 예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였기 때문이다. 이 분은 남편과 이혼 후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몇 년 전 재혼해 제주도로 내려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에게 맡겼던 자녀(오누이) 둘이 남편의 자살 후 프랑스로 입양 보내졌다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찾은 것이었다. 방송에서는 딸인 수영 씨가 프랑스인 남편과 함께 제주도에 정착해 어머니와 살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여사님께 미리 이 내용을 듣고 방송을 보아서 그런지 무척 흥미로웠다.

오전 시간에는 손님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꾸준히 오셔서 그리 바쁘지 않았다. 월요일이기도 하고, 날씨의 영향도 큰 듯 했다. 손님이 없을 때, 나는 2년 전 라섹 수술을 했던 병원에 연락해 정기(망막)검사 날짜를 예약했다. 12시 반 쯤에는 근처 정화식당에 주문해 점심으로 계란찜 백반을 먹었다. 하늘이 점차 맑아지고, 햇빛이 나기 시작하자 손님들이 갑자기 많이 오셨다. 그래도 2시 반이 교대 시간이라 많이 힘든 날은 아니었다.



퇴근하고 난 뒤 아까 주문했던 농협 ATM기에 들러 우리 교회 청년부가 매달 정기적으로 지원비를 드리는 용인 은광교회로 송금을 했다.(청년부에서 올해 나는 회계를 맡았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와서, 청소기를 밀고 검은 옷 빨래를 했다. 점심을 일찍 먹어서 그런지 배가 고파 토마토, 냉동실에 얼려 놓았던 바나나, 우유+현미시리얼+하루견과, 오키나와 빵, 팔죽을 먹었다. 그리고 설거지를 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6시쯤 퇴근하고 오셔서 마트에서 파는 버블 밀크티, 현미국수를 가져오시는 바람에 그것까지 저녁으로 먹었더니 배가 많이 불렀다.

저녁을 먹은 뒤에는 이를 닦았다. 작년 3월부터 교정을 시작했는데, 지난 달 부터는 교정 장치에 고무줄까지 끼고 있어야 해서 이걸 빼고 이를 닦고, 치간 칫솔로 한 번 더 닦은 뒤 다시 고무줄을 끼우느라 이 닦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 교정 종료 예정일인 9월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그 후에는 아까 은행에 들렀다 온 검, 청년부 가계부 정리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내역을 기입하다 보니 이상하게 10만원이 더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 온 수입일까.....평소에 오차 없이 잘 계산해 와서 그런지 좀 당황스러웠다. 아직 정기 월례회까지는 시간이 남았으니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퇴근하신 뒤에 꼭 하루도 빠짐없이 할머니, 외할머니께 안부전화를 드린다.(외할아버지는 2003년에 담도암으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치매 때문에 작년 가을부터 근처 요양원에서 지내신다.) 나도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할머니들께 직접 전화를 거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도 부모님의 이 좋은 습관을 꼭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곤 한다.

10시쯤부터는 전자기록관리론 과제를 했다. 매주 교재의 해당 분량을 미리 읽고, 질문을 한 가지 씩 올리는 과제다. 이번 주는 '전자기록의 구조와 특성: 품질요건 무결성, 이용가능성'에 관한 내용이었다. 교재를 읽고 질문을 생각하고 있는데, 동생이 그제야 집에 도착했다. 항공운항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동생은 이번 학기까지 마친 뒤 군대를 갈 계획이라, 그 전까지 담당 교수님과 함께 수업 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많이 피곤해보였다. 어머니께서는 계속 미뤄오던 사랑니를 뽑기 위해 드디어 내일 치과에 가신다고 한다. 나는 이를 매우 반기며 네이버 지도로 치과 위치를 검색해 알려드렸다.

12시가 다 되어서야 비로소 바닥에 누워 L자 다리 운동을 했다. 알바를 하면서 장시간 서 있기도 하고, 평소에도 다리가 잘 붓는 편이어서 자기 전에 꼭 이것을 한 뒤에 자려고 한다. 1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핸드폰으로 오늘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검색하곤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세월호 사고로 숨진 승무원 박지영(28), 정현선(28), 김기웅(28) 씨 3명을 의사자로 선정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세월호 사고 발생 27일째인 현재 실종자 수는 29명이다. 차가운 바다 속에 아직도 남아 있을 29명이 얼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교육원 교수님들도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록을 수집·정리 및 보존하려는 움직임을 추진 중이신 듯 했다. 기록 관리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역사를 전공했던 사학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의미 있는 일에 꼭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큰 요즘이다. 그 작은 시작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9살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7년째 쓰고 있는 일기를 앞으로도 계속 써 나가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소중한 추억과 사람들, 그리고 찰나의 감정과 생각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